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팬더스트리의 등장과 팬플랫폼의 진화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1
팬더스트리의 등장과 팬플랫폼의 진화	3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	---

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오세진 (ohsejin@kdb.co.kr)

- ◆ 202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에 대한 투자의존도가 높아짐
- ◆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중견·중소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

* 본 보고서는 '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에 기반하여 작성

□ 202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11.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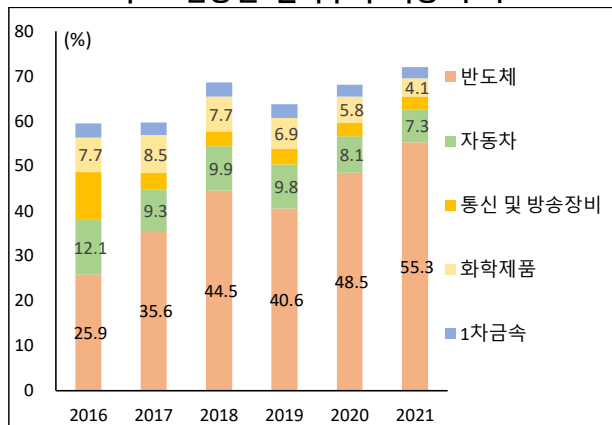
- 코로나19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도체 투자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
 -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6.7%로 주요 제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기장비 14.6%, 식료품 11.1%, 1차금속 2.6% 증가
 - 화학제품 △20.9%, 석유정제 △12.3%, 기계장비 △10.7% 등은 감소
-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2021년 절반 이상까지 확대
 - 제조업 투자에서 반도체 업종 비중은 2021년 55.3%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25.9%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
 - 이에 반해 제조업에서 자동차, 화학제품의 국내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

주요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조업	20.7	-11.2	-5.0	0.7	11.2
반도체	65.8	11.2	-13.4	20.5	26.7
전기장비	0.8	4.2	65.3	-10.1	14.6
식료품	16.4	-6.0	22.2	-6.6	11.1
1차금속	7.8	0.0	-7.5	-11.9	2.6
자동차	-7.9	-5.2	-6.2	-16.6	0.2
기계장비	-18.2	-17.6	0.7	18.9	-10.7
석유정제	101.6	-2.3	-14.7	6.1	-12.3
화학제품	33.6	-19.5	-15.4	-15.6	-20.9

주 : 당해년 명목금액 증가율
자료 : 한국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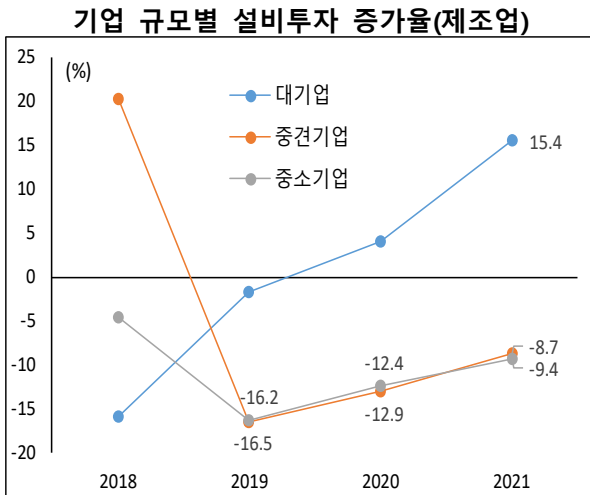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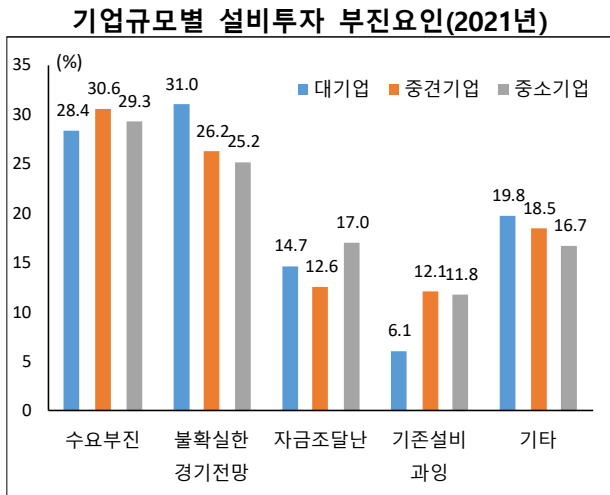
주 : 당해년 명목금액 증가율
자료 : 한국산업은행

□ 2021년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기업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간 투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2021년 대기업 설비투자는 15.4%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8.7%, 중소기업 △9.4% 감소
 - 중소·중견기업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부진요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수요부진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
 - 중소·중견기업은 만성적인 수요부진으로 인하여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한국산업은행



자료 : 한국산업은행

□ 우리나라는 업종간, 기업규모간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투자 확대가 필요

- 특정 업종에 대한 지나친 투자 편중은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위축은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체질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
-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통산업은 고도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의 제도적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해 나갈 필요

팬더스트리의 등장과 팬플랫폼의 진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신유영 (shinyy@kdb.co.kr)

- ◆ 팬덤이 소비자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 즉 팬더스트리가 주목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강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K-POP 음반시장 성장세가 뚜렷함
- ◆ 최근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팬플랫폼이 탄생함에 따라 팬덤 소비를 더욱 활성화 하고, 팬더스트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팬더스트리란, 팬(Fan)과 인더스트리(Industry)의 합성어로,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의미하며, 팬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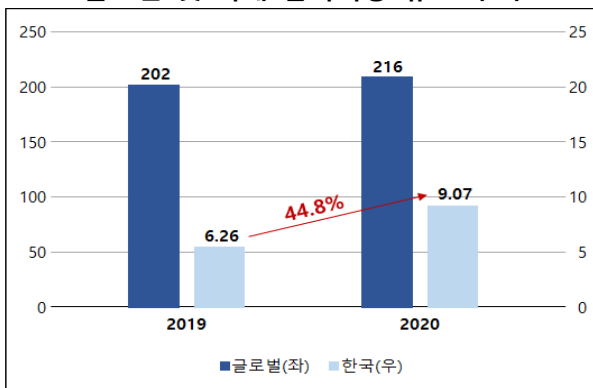
○ 팬더스트리의 대표적 분야는 음악시장으로, 2020년도 국내 음악시장은 K-POP의 팬덤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45%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IFPI(2021), Global Music Report 2020

- 특히 스트리밍 음원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실물 음반 판매량은 감소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거슬러, 국내 실물(CD)판매량은 오히려 작년대비 크게 증가하며 2020년 처음으로 미국시장을 역전*

* 가온차트, gaonchar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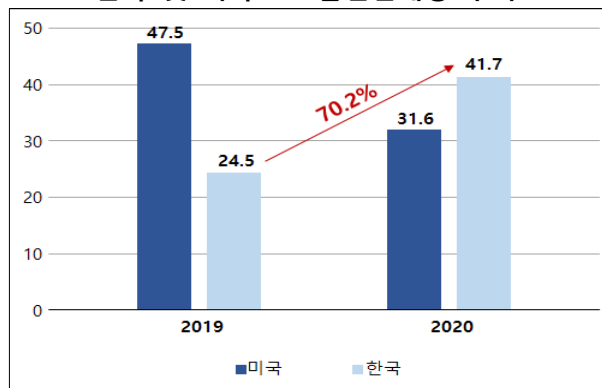
글로벌 및 국내 음악시장 규모 추이



자료 : IFPI

(단위: 억달러)

한국 및 미국 CD 음반판매량 추이



자료 : IFPI, 가온차트

(단위: 만장)

○ 이처럼 강한 팬덤은 소비자의 구매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팬더스트리의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빅히트엔터테인먼트(2020)는 2020년 팬더스트리 규모가 약 7.9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

□ 소통형 팬플랫폼의 진화와 함께 팬더스트리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팬데믹 장기화를 거치며 오프라인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팬덤이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팬덤 소비에 있어 온라인 실시간 소통, 가상콘텐츠 소비 수요 등이 증가

-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최근 대형 기획사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소통형 팬플랫폼이 등장했으며, 빠르게 규모 키워가는 중*

* 대표적으로 BTS소속사인 하이브는 2019년 자체 팬플랫폼인 '위버스'를 출시하여 출시 1년만에 매출 약 2천억원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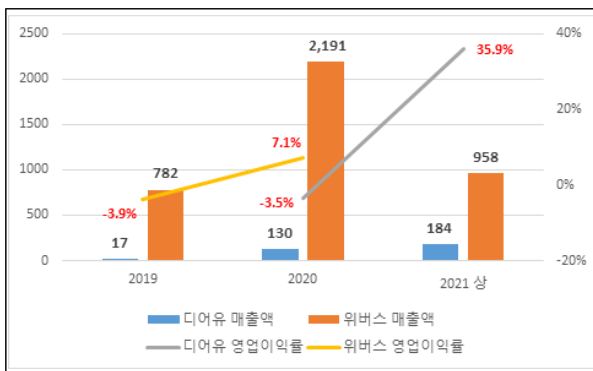
국내 주요 팬플랫폼 현황

(단위 : 십억달러)

	위버스	디어유(리슨)	유니버스
제작사	하이브	SM	NC소프트
출시일	2019년6월	2020년2월	2021년1월
이용자 수	MAU 530만명 (2Q2021)	유료구독자수 120만명 (2Q2021)	MAU 330만명 (2Q2021)
소속 아티스트	BTS, 선미 등 국내외 가수 24팀	SM, JYP 등 13개 소속사 150여명 아티스트	몬스타엑스, 오마이걸 등 국내 아이돌 18팀
특징적 서비스	팬-아티스트 네트워킹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스타 프라이빗 메시지 공식 팬클럽 활동지원	온라인 콘서트, 팬파티

자료 : 각사자료, 언론 보도내용 취합

위버스(하이브), 디어유(SM) 매출액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단위: 억원) 자료 : NC소프트

유니버스(NC소프트)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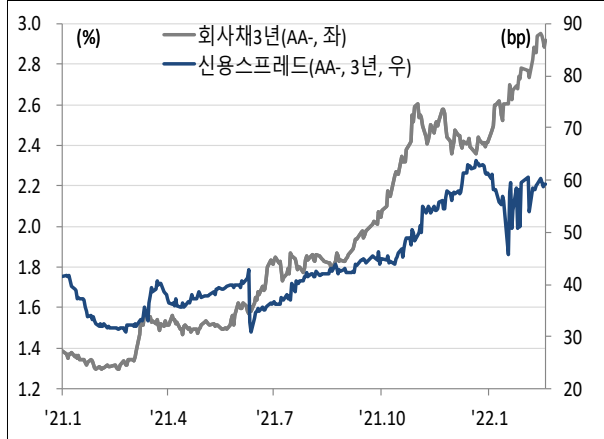


○ 팬플랫폼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추가하며 팬덤소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오프라인에 한정되어 있던 팬덤소비를 실시간으로, 공간 제약없이 가능하게 해줌에 따라 팬더스트리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위버스) 두나무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 콘텐츠를 상품으로 하는 NFT 신규사업 추진 중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2.322% (2.1bp ↓), 신용스프레드 59.3bp (0bp)



환율 원/달러 1,195.9원 (2.6원 ↓), 엔/달러 115.08엔 (0.21엔 ↓)



주가 코스피 2,744.52pt (0.12% ↓), 코스닥지수 881.71pt (0.4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65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